

日 기시다 내각 출범에... 文 대통령 “소통·협력 기대”

文, 日 새 총리에 취임축하 서한
“양국, 코로나·기후위기 등에
서로 지혜 모아 해결해 나가야
경제·문화 분야 협력 강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기시다 신임 총리 앞으로 보낸 축하 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도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해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에게도 이임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 재임

중 노고에 대해 평가한 뒤 퇴임 후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도 문 대통령에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일 관계가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으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포용’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는 ‘역사 문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라는 현안을 각각 분리해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지난달 30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새 내각과 관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험대는 기시다 신임 총리와 첫 대면 만남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와 2020 도쿄올림픽 계기 정상회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이 기간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G20 정상회의의

후 영국에서 열릴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도 기시다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나온다.

청와대도 11월 예정된 외교일정에 문 대통령 참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만큼, 기시다 총리와 만남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스가 전 총리와 ‘풀 어사이드’(pull-aside·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낸다) 형식의 만남을 고려한 만큼, 이번 외교 일정이 성사 되면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셈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과 내각 요직에 극우 인사를 기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극우 인사가 기시다 내각 요직에 기용돼 ‘역사 문제’ 해결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18일 후보 토론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사실상 파기 선언한 합의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위안부의 답변이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대장동 의혹 “직원의 일탈” 사퇴론 일축

이재명 경기지사 “유동규 구속 유감
불미스러운 일 연루, 매우 안타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들이 연관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리책임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그분이 퇴직한 후에 뇌물을 수수를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휘했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3만 명에 이르는 직원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하면 내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사퇴해야 된다는 것은 지나치단 생각이 든다”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이야기 해달라. 내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관리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결과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다 환수했으면 좋았겠지만 제도의 한계든, 저의 부족함이든,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더 이루지 못했지만 국민께 상심을 준 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이 알게 어려운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을 조사하면 전지가 개발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에게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재조사해서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정익 기자

경기·서울 순회 경선, 3차 슈퍼워크 반전 기대

“끝까지 최선을”... 이낙연, 운명의 일주일

이낙연, 경선 득표율 34%로 2위
이재명과 누적득표율 20만표 차이
9일 경기, 10일 서울서 ‘순회 경선’
“우리만 할 수 있는 책임, 완수할 것”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임한 이낙연 후보를 말한다. 이낙연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음에도 9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 수 34만1076표를 확보해 34.33%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 순회 경선은 오는 9일 경기와 10일 서울 및 3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로 막을 내리며 대선 본선에 나갈 후보를 정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종 득표율이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당 안팎에선 지난 3일에 치러진 2차 슈퍼워크에서 사실상 대선 본선 후보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평이 우세하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누적 득표 수에서 약 20만 표 차이가 난다.

이낙연 후보로서는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 남은 경기와 서울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현재 도지사로 있는 경기 순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워크 결과 발표가 끝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서울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워크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16만4696명)를 시작으로 10일 서울(14만4481명)·3차 국민선거인단(9월 23일 기준, 30만5780명) 및 재외국민(4933명) 등 총 61만989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득표율 65%를 적용해보면 약 40만 명의 선거인단이 경기 및 서울·3차 슈퍼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이낙연 후보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 20만 표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는 3일 2차 슈퍼워크 직후 지지자들과 만나 ‘결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선투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변함없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국민과 당원을 저를 믿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여러분도 기죽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계속 힘내주시길 바

란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웅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처럼 국민과 당원을 믿고 전진한다는 마음가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경기와 서울에서 결선투표를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관건은 득표율이다. 한 표라도 득표율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며 “현재 캠프에 소속된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최종 경선을 위한 득표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다. 말 그대로 하나하나 노력하고, 노력의 가치가 쌓이면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